

금주의 칼럼

효과적인 의사소통

의사소통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,
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, 진심이 오가는 생명의 다리입니다.

1. 소통에 대한 기본 인식 점검

나는 소통을 말하기보다 '연결'이라고 생각하나요?

나는 소통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라 인식하고 있나요?

내가 잘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?

나의 말은 상대방을 세우고 있는가요, 흔들고 있는가요?

나는 '듣는 것'과 '말하는 것' 중 무엇에 더 익숙한가요?

내가 의도한 것과 실제 전달된 말은 얼마나 일치하나요?

내 소통 방식은 상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?

소통의 실패로 인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?

나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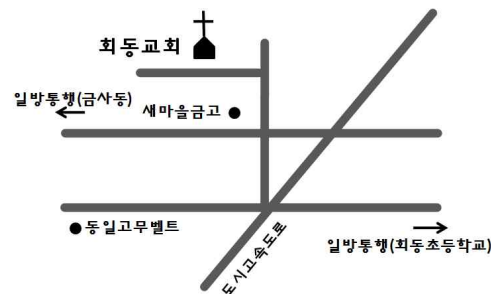
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

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

- 타지키스탄 (최**-서** 선교부)
- 국제기아대책(동래지역-선교부)
- 캄보디아 (최** 살롬회)
- 교경협의회(금정경찰서, 선교부)
- 총신대학교 (박성규. 선교부)
- 네팔선교(차**-2남전도회)
- 부루키나파소(김** 3여전도회)
- 한국대학생 선교회(박**지-4여전도)
- 인도네시아(배** 2여전도회)
- 인도네시아(조** 1남전도회)
- 동부산노회: 미자립교회 지원 (선교부, 본회계)
- 삼척소명교회(고진용, 권사회)
- 부산신학교(교단신학교, 기도후원)
-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(금정지역)

교회 집회 안내

예 배 시 간	집 회 시 간
주 일 예 배 오전 11:00	삼 일 기도 회 오후 7:30
주일찬양예배 오후 2:00	유 * 초 등 부 주일 9:00
삼 일 예 배 오후 7:30	중 고 등 부 주일 9:00
새 벽 기도 회 매일 5:30	청 년 부 주일 12:45



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

주일예배

오전 11: 00 / 인도 : 배영조 목사

입 레	입례송 / 기원
표 어 제 창	" 내가 기도하노라 " (빌 1:9)
찬 송	5장
교 독 문	11문 (시편 17편)
신 앙 고 백	사도신경
찬 송	436장
기 도	오정수 장로
성 경 교 독	요한복음 1: 43-51
찬 양	할렐루야 찬양대
말 씀	예수님을 만난 사람
찬송*봉헌	287장 / 봉헌
봉 헌 기도	인도자
광고*교제	교회소식 / 성도의 교제
찬 송	46장 (1절)
축 도	인도자

○ 표시는 일어섭니다

2026. 3 . 15 / 제 48-11

2026 비전 :

" 내가 기도하노라 " (빌1:9)

since 1979.

찬양예배 오후2시

인도:배영조목사

경배와 찬양

[1.45-2:10]

입 레: 작은 십자가 찬양

찬 송: /

기 도: 신광수집사 (다음: 이순점권사)

성 경: 시편 62:1-5

특 송: (다음: 1구역)

말 씀: 나의 소망

기 도: 합심기도(2)

광 고: 인도자

축 도: 인도자

수요기도회

수요일 오후 7:30

말씀 : 신명기 강해 / 인도: 배영조 목사

새벽기도회

새벽 5시30분

말씀: 누가복음 강해 / 인도: 배영조목사

[토 ~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] 1층 교육관

■ 본회계 부산은행 073-01-033878-7 회동교회

■ 선교 부산은행 112-2335-8311-00 최은경

■ 건축 새마을금고 9002-1699-9318-3 회동교회

3 월 봉사 안내

차 량	(오전) 김수안 오세영 / (오후) 김수안(온천) 박영수(재송)
안 내 / 식 당	이봉순 / (주방) 이순점 이은심 / (청소) 강형순
중 식 봉 사	1주(1일) 2주(8일) 3주(15일) 4주(22일) 5주(29일)
기 도	3,4구역 5,6구역 7,8 구역 9,10구역 1,2구역
주 일 예 배	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
주 일 오후	오세영 이성희 신광수 이순점 이은심
삼 일 밤	합심기도

● 담임목사: 배 영 조

● 장 로: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

● 선교사: 최강주 서현아

● 전도사: 허춘성 박옥주

● 지 휘: 김태호

● 반 주: 김정숙 부: 최문호

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(회동동) Tel. 522-8771, 522-3708(목사관) Fax. 525-7191

홈페이지: <http://hoedongch.org/index.html> [네이버에서 "회동교회"]

교회 소식

-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*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.

- 1 월례회: 오늘 각 전도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.
시간: 점심 후 자유롭게 장소: 본당 및 각 전도회실
- 2 경배와 찬양: 오늘 오후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드립니다.
- 3 구역모임: 3월부터 구역모임 열심히 모임니다.
- 4 전도: 3월 11일부터 전도팀은 매주 수요일에 전도 나갑니다.
- 5 특송: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특송이 시작됩니다. 1구역부터 시작
- 6 공사: 교회별관 도시가스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.
- 7 선교사: 최강주 선교사 내외는 타지키스탄 선교지에 잘 도착했습니다.
- 8 가정사역: 생명의 양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- 9 행사안내: 1) 대심방: 3월 24일부터 시작
2) 총회사모세미나: 3월16-18일.
3) 고난주간: 3월 30일부터 한 주간

대심방 일정

- # 대심방: 3월 24(화)일 부터 봄 대심방 실시 합니다. 구역별 연합대심방
각 구역내 구역원들은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심방대원: 담당권사, 교구전도사, 담임목사
1구역: 24일, 화요일, 심방대원- 이은심
2구역: 25일, 수요일, 심방대원- 이순점
3구역: 26일, 목요일, 심방대원- 김경애
4구역: 27일, 금요일, 심방대원- 최은경

3 월 행사 안내

* 삼일절: 3월 1일	* 월례회: 각 전도회 월례회 3월 15일
* 교회창립 기념주일: 3월8일	* 전도팀 전도: 3월 11일부터 시작
* 제직회: 3월 첫째주	* 대심방: 3월24일부터 실시(연합대심방)
* 기관별대회: 찬양,울동/ 3월8일 4여전도회주관	* 총회사모세미나: 3월 16-18일
* 동래시철하: 3월 4일, 내성교회당	* 고난주간: 3월 30일부터
* 경배와 찬양: 3월 15일	* 권사기도회: 매달 넷째 주 화요일
* 구역모임시작: 3월부터	* 새가족부 : 세미나실, 점심 후 성경공부

향기로운 예물

- ◆**십일조:** 김은성*최승희 김종섭*장은미 김태호 신광수 박영수*이순점 배영조*김옥단 최춘은
- ◆**감 사:** 김승하 김치현*김삼예 박종규*강영선 배영광 배영조*김옥단 최문호*손예진 최진수*김미연 무명1
- ◆**선 교:** 김태호 1남전도회 김종섭*장은미 김미경 김은수*김은숙 백운자 이봉순 남선이
- ◆**건 축:** 김미경 백운자 이봉순 남선이 김은수*김은숙 김난새*이현정 김종섭*장은미

양육,친교 모임

프로그램	모임시간	모임장소
새가족부	주일 오전 12:40	1층 세미나실
구역장모임	주일 (매달 마지막주)	3층 교육관
돌봄교실	주일 오후예배시간	교육관/ 별관
기초교리반	상 . 하반기(문답교육)	1층 세미나실
성경강해	마태, 시편, 신명기	본당
친교(탁구부)	주일/ 오후예배후	별관

구역 모임 보고

3월 모임

구역	구역장	모인수	전도	헌금	성경	모인곳
1교구						
1	이순점	3		10,000	870	박영수
2	강형순				2160	
3	이은심	4		17000	2000	교 회
4	백운자				3135	
5	김경애				1705	
2교구						
6	이봉순				760	
7	박광자	10		10000	1470	각가정
8	이현정				3379	
9	전만주				2257	
10	김종섭				480	

생명의 양식

03-3 훈계의 원리 잠언 29장 17절

본문: "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."(잠 29:17)
이 구절은 훈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.
훈계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일까요?
1. 자녀 교육에 있어서 훈계는 필수적인 원리입니다.
부모로서 차라리 훈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우리 집안을 보아도 악한 인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
또한 우리 아이가 나쁘게 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.
그리고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.
징계 후에는 "아이를 위해서 그랬다"라는 생각보다는 "아이에게 미안하다"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.
그래서 징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.
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죄 성과 욕망을 가지고 생을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. 그래서 아이들은 완전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
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독차지하기를 원합니다.
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.

사실상 따지고 보면 연령이 낮아져 아기가 될수록 속은 "자기"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이 아이들에게는 차원 높은 삶의 가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 때에 자기 중심적 태도를 계속 방치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잘못된 사람으로 자라게 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.
그러므로 이 훈육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.
부모란 그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
성경은 그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.
"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
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..." (잠 13:24)
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.
(히 12:5,6) 그러므로 훈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.
훈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여야 합니다.